

# 장례 절차



통합장례서비스  
예원추모관

## 일반 유교식

### 1일차

- (1)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시신을 안치하고,
- (2) 사망진단서와 장례일정, 화장할 경우 화장터 예약 등을 하고 빈소를 차린다.
- (3) 유교식 빈소는 영정사진과 제사상, 위패(신주) 를 준비한다.
- (4) 상주의 경우 상주복으로 갈아입고, 고인이 입을 수의를 정한다.
- (5) 간단히 제사를 지낸 뒤, 조문객을 맞기 시작한다.

### 2일차: 입관식 진행

입관할 때는 고인에게 수의를 입히기 전 몸을 깨끗이 씻기는 염습 과정을 한 뒤, 1일차에 미리 고른 수의를 입히고 관에 눕힌 뒤 꽃과 종이 등을 놓는다. 반함의 경우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 (1) 상주와 유가족, 입관식에 참석할 인원들이 입관실에 모여 고인의 마지막 얼굴을 본 뒤, 장례사가 미리 준비해놓은 관에 시신을 놓은 뒤 관을 덮는다. 보통 입관식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를 하며 곡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2) 입관식이 끝나면 빈소로 돌아와 상복을 입은 뒤 성복제(입관 이후 치르는 첫번째 제사) 를 치른다. 성복제 이후에는 다시 문상객을 받는다. (문상은 보통 2일차 자정 정도까지만 받는다.)

### 3일차: 발인식 거행

- (1) 발인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제사를 지낸다,
- (2) 건강한 성인 남성 8~10명이 관을 들고 운구차까지 운구한다.
- (3) 운구차에 실은 뒤에는 화장터 혹은 장지로 향한 뒤 관 또는 유골함을 안치한다.
- (4) 이 후에는 삼우재를 시작으로 사후 유교 장례 예식을 거행한다.

## 불교식

### 1~2일차:

유교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지만, 다른 점은 스님이 빈소 한 쪽에 불경을 펼쳐 놓고 계속해서 불경을 외며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 3일차: 발인 전 불교식 영결식

- (1) 불교식 영결식은 스님의 주례로 빈소 혹은 영결식장에서 진행한다.  
영결식에서는 스님이 삼귀의례, 약력보고, 착어 창훈, 헌화, 독경(염불), 추도사, 소한 의식으로 진행한다.(스님에게 맡기면 된다)
- (2) 영결식 이후에는 장지나 화장터로 향하는데, 보통 불교는 화장을 하기에 불교 신자들은 보통 화장하는 경우가 많다. 스님은 화장터까지 동행해서 화장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염불과 독경을 계속한다. 이 후에는 유교식 장례와 동일한 사후 장례 예식(삼우재, 49재) 가 절에서 보통 진행된다.

### 기독교식

기독교의 경우 사후세계의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만을 인정하고 있고, 한번 행선지가 결정된 영혼이 현세와 교통한다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에 기존 유교, 불교식 장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염습을 하지 않고, 향은 영혼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어 향도 피우지 않고, 제사상도 차리지 않으며 빈소에는 오직 꽃과 성경, 위패만을 올려놓는다. 또한 기독교의 장례는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며 모든 예식은 예배로 진행된다.

### 1일차

- (1)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고 사망진단서 발급, 빈소 구성등을 한 뒤 헌화객들을 위한 국화를 마련해놓는다.
- (2) 기독교에서는 절을 이상송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빈소에서는 1일차에 위로예배를 드리며, 보통 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와 성가대가 와서 집전한다.

### 2일차: 입관예배

- (1) 입관에서도 염습을 하지 않고 십자가가 새겨진 수의만을 입혀 관 속에 넣는다. 입관예배에서는 찬송가, 복음 낭독이 이어진다. 빈소에 돌아오면 한번의 예배를 거행한다.

### 3일차: 발인예배 및 장례예배

- (1) 장례예배는 보통 고인이 다니던 교회나 장례식장에서 목사의 주례로 치뤄진다. 장례예배는 찬송과 성경 낭독, 약력보고, 주기도문의 순서로 진행된다.  
(목사님에게 맡기면 된다)
- (2) 장례예배 이후에는 화장터나 장지로 향하는데, 화장터에서는 화장예배를 하고 장지에서는 하관예배 혹은 납골예배를 한다.

기독교는 사후 장례예식을 인정하지 않기에 삼우재나 49재가 없고, 대신 매 기일이나 명절마다 추도예배를 드린다.

## 천주교식

일단 신자의 경우 죽기 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 원목실로 연락해 병자성사를 요청하면 되고, 집에서 운명할 경우 환자가 다니던 성당이나, 급한 경우 근처 성당에 연락하여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세례성사를 받지 않았다면 대세를 집전한다. 신부가 올 시간이 안되면 보호자 본인이 집전해도 된다.

병자성사를 받기로 했다면 노자성체를 할 때 성체를 제대로 삼키지 못할 것을 대비, 물과 스푼을 준비해둔다. 병자성사는 신부의 기름축복과 노자성체로 진행된다.

- (1)환자가 운명할 경우 손에 십자고상과 묵주를 쥐어주고, 30여분 정도 연도를 한다.
- (2)연도가 끝나면 시신을 영안실로 이동시키고 빈소를 차린다. 빈소를 차릴 때는 제사상을 차린 듯 음식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 간출하게 성수통과 국화만을 올려도 된다.
- (3)조문이 시작되면 조문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 신부가 빈소에서 위령미사를 집전하는 경우도 있다. 위령미사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청하는 미사이다.

## 2일차: 입관예식

한국 천주교는 유교 전통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에 염습 과정도 거친다.

- (1)시신을 염습하고 그 대신 기름을 바르고 배에 싼 뒤 관에 넣는다.
- (2)입관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연도와 성수예절을 한다.
- (3)빈소로 돌아온 뒤에는 신부와 장례미사 일정을 논의하고, 참석자들은 그날 자정까지 연도를 계속한다.

## 3일차 아침

- (1)영안실이나 빈소에서 출관예식과 성수예절을 행한 뒤, 망자가 다니던 성당이나 병원 내 마련된 가톨릭 영결식장으로 옮겨 장례미사를 거행한다.  
이 때 신자의 경우 머리가 입구 쪽으로 향하도록 관을 놓는다.

(2)장례미사는 말씀 예절 + 성찬의 전례와 집전 사제에 성수를 뿌리며 축복하는 고별식으로 진행된다.

(3)장례미사가 끝나면 장지로 옮겨 하관예식을 진행하며, 이 때 관과 무덤을 향해 성수를 뿌리며 축복예식을 갖는다. 화장할 경우 화장터로 옮겨 화장예식을 하게 되며, 화장터에서도 옴의 노래와 연도를 계속하고, 유골에는 성수를 뿌려 축복한다. 납골당/ 납골묘에서는 납골예식을 갖고 납골 시설에도 매장과 마찬가지로 성수로 축복을 하고 연도를 한다.

이 후에는 삼우재 미사를 시작으로 30일 동안 위령미사를 정기적으로 봉헌하고, 49재 미사도 봉헌된다. 이 후 매년마다 망자를 위해 연미사를 넣어주면 된다.